

정책 하이라이트

1.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회원국 협력 강화

● 개요

· '05년 7월 글렌이글 G8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대응, 청정연료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행동강령(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으며, IEA의 역할 가운데 특히 비회원국과의 협력이 강조되었음.

- 중점 사업으로 러시아, 중국 및 인도에 읍저버 자격을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임.

● 세부내용

·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IEA 비회원국인 러시아, 중국 및 인도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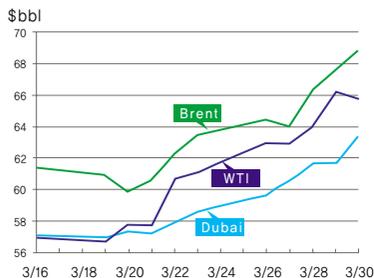
※세계 에너지공급 증가의 80%와 수요증가의 50%를 이들 비회원국이 점유할 전망

· 이를 위해 '07년부터 임시위원회인 CNMC(Committee on Non-Member Countries)를 세계에너지협력 상설 그룹인 SGD(Standing Group on Global Energy Dialogue)로 격상시키고, 러시아, 중국 및 인도 3국에 대한 새로운 포용 전략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함.

주요 내용

- 정책 하이라이트 / 1
- 해외에너지 정책/시장 동향 / 10
- 국내외 정책연구 / 16
- 연구원 동정 / 19

국제유가추이



평균가격(2007. 3. 16~3. 30)

WTI	Brent	Dubai
61.18	63.62	59.3



• 비회원국의 IEA 참여방식

- 임시 옵저버(Ad hoc Observer) : 특정 비회원국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 일부 및 전체 회의에 PD(Partner in Dialogue)로서 초청하며, 최초 초청 시 이사회의 조언 필요
- 상설 옵저버(Regular Observer) : 해당 위원회에 의해 특정 비회원국의 정기적 참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시,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해당 비회원국에게 정규 PD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매년 갱신
- 주요 비회원국인 중국, 인도 및 러시아에 대한 고위급 연락위원회(Liaison Committee)를 설치하여 매년 사업성과 평가 및 차년도 사업안 수립

● 시사점

- 향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주요 의제들이 IEA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 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IEA 참여전략을 기존의 동향과약 수준에서 보다 능동적인 참여로 전환하여 IEA 내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우즈벱의 외교관계와 한국의 우즈벱 가스전 개발사업

● 개요

- 최근 우즈벱과 EU 및 미국의 관계 정상화 조짐이 관측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는 다소 냉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FE/RL, 2007.3.9).
- 한국가스공사가 지분투자한 우즈벱 가스전 개발사업의 대 유럽 PNG 공급전략은 러시아-우즈벱 간의 외교관계 냉각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세부내용

- 3월 7일 러시아 총리의 우즈벱 방문에서 러시아 측은 가스프롬과 루크오일사의 에너지부

문 25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등 대 우즈벡 협력 강화 조치들을 발표하였으나 총리급 방문 결과로는 러시아 측 외교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종전 가스프롬의 투자약속 미이행(우즈벡 가스전 개발을 위해 지난해 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약 3천만 달러만을 투자)에 대한 우즈벡의 불만 제기는 우즈벡의 대 러시아 외교관계 냉각의 신호탄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우즈벡은 EU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EU와 미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 우즈벡은 미국 및 EU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즈벡 정부 전 고위급 인사의 신문기고 등을 통해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EU는 안디잔 사태 이후 취해졌던 무기수출 금지조치, 비자발급 제한 등의 제재조치 완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안디잔 사태는 '05년 발생한 우즈벡 정부군의 시민 학살사건으로 우즈벡 내 미국 공군기지 철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

-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Evan A. Feigenbaum)는 최근 타슈켄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즈벡의 인권문제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희망한다고 피력

• 한국가스공사는 우즈벡 우스트르트 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의 지분 50%를 확보하여, 유럽으로의 PNG 공급 및 GCC(Gas Chemical Complex) 건설로 수익 극대화를 계획하고 있음 (한국가스신문, 2007.3.5).

- 유럽으로의 PNG 공급은 가스전 근처에 가설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임.

• 현재 우즈벡의 대 유럽 PNG 공급은 러시아의 CAC(Central Asia Center)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망의 사업자는 러시아의 가스프롬임.

- 가스프롬은 유일한 가스공급망 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통해 우즈벡 산 대 러시아 가스 수출가(약 \$40/1,000m³)를 시장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하고 있음(2006년 5월, CIS 차세대지도자 초청 간담회 내용).



● 시사점

- 우즈베크이 친서방정책을 재추구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소 냉각될 조짐이 있으며, 우즈베크의 유일한 가스수출로인 CAC는 러시아의 대 우즈베크 압박전술의 일부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의 대 유럽 PNG 공급을 통한 수익극대화 방안은 러시아와 우즈베크 양국의 관계 냉각 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3. 미국, Advanced Energy Initiative(AEI)의 예산 증액

● 개요

- 미국 에너지부는 '07년 2월 5일, '2008년 예산계획안' 을 발표하면서 AEI의 추진을 위해 '07년 대비 26% 인상된 26억 달러를 책정함.
- AEI는 미국의 에너지안보와 지구온난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며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청정 석탄 개발 및 원자력 에너지 기술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AEI의 세부내용

- 바이오 연료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10년 내 휘발유 소비를 20% 감축
 - 6개의 벤처업체에 기술개발을 위탁하여 4년 후에 년 1억 3000만 갤런의 에탄올 연료를 생산할 계획
 - 에탄올의 생산원료로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료의 경제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폐목재 등에서 추출되는 셀룰로오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장기적인 에탄올 수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시행정부는 브라질과 새로운 에탄올 동맹을 시도하고 있음.

- Solar America Initiative(SAI) 추진을 통해 2015년까지 태양광 발전비용을 기존 발전비용 수준으로 대폭 개선
 - 168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2010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을 2,850 MW로 확장(이는 '05년 용량기준 240MW의 약 10배에 달함.)
 - 발전 비용은 2015년까지 \$0.05 ~ \$0.10/kWh 수준으로 개선('05년 기준 발전비용은 \$0.18 ~ \$0.23/kWh)

(US Department of Energy, 2007.3)

● 시사점

- 바이오 연료 프로젝트를 통해 수송용 에탄올 제조기술과 에탄올 엔진 개발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선진국의 태양광 발전 기술개발도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선진국의 관련분야 기술개발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에너지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Data Center와 그린컴퓨팅

● 개요

-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의하면 '96년 - '06년 기간 중 세계 컴퓨터서버의 수가 6백만대에서 28백만대로 증가하였고 '00년 - '05년 기간 중 Data Center의 전력사용량도 2배로 증가
 - 인터넷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처리속도 위주로 컴퓨터가 설계되고, 전력사용량 중 절반은 컴퓨터의 작동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는 냉각을 위해 사용되는 실정임.
- 컴퓨터업계는 비용절감과 환경문제를 인식하여 환경친화적 사업(그린 컴퓨팅)을 추진 중
 - 주요 기업들(AMD, Dell, HP, IBM, Intel, Microsoft, Sun)은 Data Center의 전력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



● 전력사용량 감축을 위한 세 가지 기술적 방안

- Multi-core processor chip의 사용 : 개별 컴퓨터칩에 다수의 정보처리엔진을 설치하여 에너지효율을 증대
- 전력공급방식 변경 : 교류-직류간의 변환과정에서 불필요한 열이 발생되므로 중앙DC공급 원으로부터 직접 전력공급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
 - ※ 미국의 Data393 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력소비량을 20% 감축
- 냉각방식의 변경 : HP사는 서버의 온도감지센서를 에어컨디셔너에 연결하여 냉각이 필요한 서버에 선택적으로 찬 공기가 배출되는 냉각방식을 사용하여 25% - 40%의 냉각비용 절약효과를 거둬.

● 시사점

- Data Center의 전력수요 급증으로 이 분야의 에너지 절약이 주요 문제로 등장함.
-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관련 부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효율의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의 마련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임.

(The Economist, 2007.3.1)

5. 미국, 최저에너지효율기준 설정절차 간소화 추진

● 간소화 제도 개요

- 미국은 현재 기술적 분석방식으로 최저에너지효율기준을 설정해왔으나, 이는 분석비용이 과다하고 설정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비효율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이에 DOE는 에너지정책 및 절약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EPCA)의 개정을 통해 최저에너지효율기준 설정의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개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함.(DOE 보도자료, 2007.2.26)

● 간소화 제도의 세부내용

- DOE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준대상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하여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효율기준(direct final rule)을 고시할 권한을 지님.
 - 특정한 조건으로는 첫째, 제조업자, 소비자단체, 주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효율기준을 제안하고, 둘째, 그 기준이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임.
- 그러나 DOE가 효율기준을 고시한 이후 정당한 반대의견이 접수될 경우 DOE는 절차에 따라 그 기준을 철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시이후 120일에 그 기준은 효력을 발생함.
- 간소화 제도가 적용되는 에너지사용기기는 30종 이상으로서 가정용 전기기기, 조명기기, 상업 및 산업용 에너지사용기기를 포함하고 있음.
 - ※에디슨전력협회(Edison Electric Institute)는 이미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CEEE) 등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하여 전선주 변압기에 대한 새로운 효율기준을 DOE에 제출하였음(연간 260억 kWh 절감 가능).

● 시사점

- 이 같은 절차 간소화는 고효율 제품의 시장진입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신기술 개발에 의한 에너지절약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입 및 확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기술력에 의한 시장지배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이 대상제품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제도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됨.

6. 가스 OPEC 설립 의견의 평가와 시사점

● 가스 OPEC 설립 의견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07년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OPEC 형태의 가스생산국 카르텔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에 앞서 2007년 1월 28일, 이란의 최고 종교지도자인 하메네이는 테헤란을 방문한 이바노프 러시아 안보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가스 OPEC 설립을 제안

• 그리고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안드레이 레우스)은 에너지 대화를 위한 새로운 포럼을 구상 중이라고 밝힘.

- 새로운 포럼은 특정 국가에 대한 적대적 연합체가 아니라 에너지 시장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임.

(Interfax Russia & CIS Oil and Gas Weekly, 2007.2.21)

● 가스 OPEC 가능성

• EU는 카르텔 설립 시 역내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으나, OPEC 형태의 가스 카르텔은 설립되어도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가스 산업은 초기투자비가 과다하여 주로 장기계약으로 거래되고 있어 석유와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등 서방의 시장경제 국가들이 주요한 가스 수출국이어서 카르텔 결성이 어려움.

• 따라서 러시아 측 주요인사가 언급하고 있는 가스 OPEC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가스포럼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정책공조는 천연가스 가격결정 방식 등 계약사항의 협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회원국 간 합의 내지 실천이 어려운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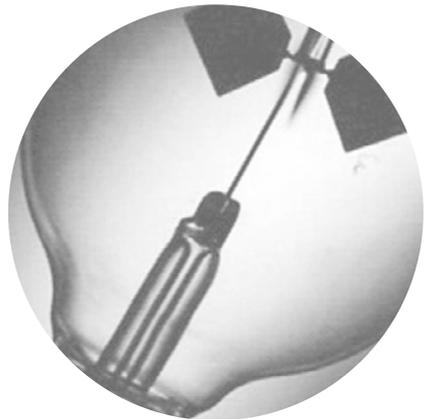
• 예컨대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은 이미 2001년에 태동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

- GECF의 회원국인 러시아, 알제리 등은 EU의 가스시장 자유화 및 목적지조항(Destination Clause) 무력화 등에 대해 정책 공조를 시도한 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음.

※ Destination Clause : 가스수입 시 수입가스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

● 가스 OPEC 설립 의견에 대한 시사점

- 이와 같이 볼 때 가스 OPEC 설립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잠재적 의도는 주요수출 시장인 EU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보임.
- 러시아는 EU의 가스소매시장 참여를 추진함과 동시에 EU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노력 중임.
- 한편, EU는 가스시장의 경쟁촉진을 추구하면서 러시아가 에너지헌장을 비준하고 파이프 라인을 제3자에게 개방하기를 희망함.
- 이러한 사항은 금년도 EU-러시아협력협정(EU-Russi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의 주요한 핵심이슈이며, 러시아는 협상력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해외에너지 정책/시장 동향



144차 OPEC 정기총회 결과

- OPEC은 3월 15일 비엔나에서 1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에 합의된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지난 두 차례 감산 결정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음.
 - OPEC은 지난 11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70만 b/d 감산을 결정하였음.
- 한편 OPEC 총회는 관행상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으나 6월 총회를 생략하고 9월에 총회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총회일정 변경의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9월로 총회가 미루어지면서 총회 전까지 원유증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 따라 향후 유가상승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임.

(Reuters, 2007.3.16)



가스 OPEC 창설 논란 재부상

- 러시아 코메르산트지는 다음 달 9일 도하에서 열릴 예정인 가스수출국회의(GECF)에서 가스카르텔의 창설이 발표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련국간의 정치적 합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아랍국 외교관 발언을 인용 보도
 - 또한 코메르산트는 “러시아, 이란, 카타르, 알제리, 베네수엘라 등이 창설멤버로 참여할 것”이라고 아랍소식통을 인용
 - 지난주에는 알제리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스OPEC 창설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세계 3위 가스생산국이며 창립멤버로 거론되는 카타르의 고위에너지관료는 이미 2월 5일 자국의 에너지장관이 가스카르텔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도하회의에서 가스카르텔을 창설할 계획이 없다고 논평
- 카타르나 알제리의 에너지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카르텔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으며 향후 수년간은 가스카르텔의 설립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

- Alfa Bank는 연구보고서에서 가스카르텔 창설 추진세력의 증가는 에너지수입국에 추가적 압력을 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논평
 - 이미 EU는 카르텔의 가격담합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미부통령 체니는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를 협박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음.

(Reuters, 2007.3.19)



Tanggung산 LNG 한국 판매가격 인상 계획

- 인도네시아 에너지부 장관(Purnomo Yusgiantoro)은 한국 측 구매자들과 가스수출가격 인상을 위한 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언급
 - 현재 한국의 Tangguh산 LNG 수입가격은 유가에 연동되어 있으며 상한은 배럴당 \$25로 규정(포스코가 연간 55만톤, K-Power가 연간 60만톤 계약)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동되는 유가 상한을 배럴당 \$38까지 인상하고자 함.
 - 이 경우 현재 \$3.40~\$3.50/MMBtu에서 결정되고 있는 LNG 수입가격 이 \$5~\$5.60/MMBtu(FOB 가격)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

(World Gas Intelligence, 2007.3.14)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방안

- 일본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08년~'12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 저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05년 배출실적은 오히려 13% 초과함.
 - 산업부문은 3.2% 감소, 가정, 상업(업무 외 부문), 수송부문은 각각 37.4%, 42.2%, 18.1% 증가함.
- 상업부문의 구체적인 절약방안으로 일본의 벤처기업, E-Cubic이 개발한 '에너지 체중계'가 활용됨.
 - 이는 5분마다 전력량을 계측하여 금액으로 알려주는 장치로써 실제로 일본의 한 외식 체인점은 연간 10%의 전력소비를 절약하였음.



- E-Cubic은 가정용 '에너지 체중계' 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수송부문에서는 천연가스 차량 도입과 자동차 공동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현재 일본에서는 2,500명이 공동으로 239대의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음.

(www.mainichi-msn.co.jp, 2007.3.14)



브라질, 에탄올 붐

●현재, 브라질(178억ℓ)과 미국(185억ℓ)은 세계 에탄올 생산의 72%를 점유하고 있음.

- 브라질은 향후 6년간 142억 달러 규모의 77개 신규 설탕 및 에탄올 공장을 건립 예정

※외국 기업으로는 Sempra Energy(미국), Cargill(영국), Louis Dreyfus(프랑스), Nouble Group(싱가폴) 등이 참여 예정

(Financial Times, 2007.3.7)



EU, 전력산업의 사업분리(Unbundling) 논의

●유럽연합은 수직통합형 에너지회사를 발전부문과 배전부문으로 분리하자는 현안을 검토함.

- 지난 1월 공표된 에너지정책안(Energy Policy Package)을 통해 경쟁체제를 바탕으로 한 유럽단일시장 구현을 위해서 전력산업에 소유권분리(Ownership Unbundling)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하지만 독일,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라트비아 등이 소유권분리에 반대하고 있으며,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은 찬성 의견을 개진함.

●이에 소유권은 기존의 전력회사가 보유한 채 송배전망에 대한 운영권을 독립적인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음.

(Financial Times, 2007.3.7)



EU 가스수요의 정체

●Eurogas 산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06년 EU 25개국의 산업용 가스소비는 4,862억 m3로

전년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

- 이는 가스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발전부문에서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임.

- 영국에서는 발전용 연료를 가스에서 석탄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World Gas Intelligence, 2007.3.7)



주간 국제유가 동향

- 3월 셋째 주(3/19~3/23), 국제 현물유가는 석유제품재고 감소, 정제가동률 증가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예상과 23일 발생한 이란의 영국해군 나포 소식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냄.

-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가 발표한 23일까지의 석유제품재고 통계에 따르면 원유는 전주대비 90만배럴 감소하였으며, 중간유분과 휘발유는 각각 30만배럴, 70만배럴 감소하였음.

- 미국 3월 둘째 주 정제가동률은 86.3%로 전주대비 0.7% Point 상승하였으며, 예방정비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휘발유 성수기를 앞두고 정제가동률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원유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24일 UN 안보리의 이란 추가제재 결의를 앞두고 영국해군 15명이 이라크 해 부근 샤프트-알 아랍수로에서 이란에 의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급속도로 확산됨.

- 한편, IEA는 현 유가수준을 높게 보고 OPEC의 증산을 권고하고 있으나 OPEC은 9월까지 총회를 미루고 있어 증산의지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음.

- 3월 셋째 주 Nymex 원유선물 가격은 휘발유재고 감소로 여름철 휘발유 성수기를 앞두고 원유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주 하락세에 대한 기술적 매수와 23일 발생한 이란의 영국해군 나포로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되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냄.

- 최근 유종 간 가격차가 이상 현상을 보여 기술적 반등 요인도 유가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111호)



Petronas,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의 현황 및 투자동향

- '74년 설립된 이후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국가 재정의 30% 이상을 담당함.
- 동남아시아 지역 기업으로 유일하게 포춘 500대 기업목록에서 120번째 기업으로 선정됨.
- 전 세계 26개국에 걸쳐 약 60여개의 사업을 수행 중이며, 해외사업으로부터 전체 수익의 35%를 획득하고 있음.
 - ※Petronas의 해외 석유 및 가스생산지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수단, 이란, 차드, 이집트,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있음.
- 최근 Aramco(사우디아라비아), Gazprom(러시아), CNPC(중국), NIOC(이란), PDVSA(베네수엘라), Petrobras(브라질)와 함께 '新 7자매' 의 하나임.
 - ※이들 7개 국영석유회사는 세계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의 1/3 이상을 소유하고 생산량의 1/3을 차지
- 이집트 및 영국의 LNG 설비 투자
 - '03년 이집트 Idku의 LNG 설비에 대해 BG 등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
 - 또한 '08년에 상업운전이 개시될 예정인 영국의 Dragon LNG 터미널의 지분 30%를 인수
 - 이러한 투자를 통해 제3세계 및 대서양 지역의 LNG 시장에서 Petronas는 중요한 입지를 구축하게 됨.
- 러시아 국영석유회사(Rosneft)의 지분 매입
 - '06년 7월 러시아의 최대 석유회사인 Rosneft의 지분 10%(11억 달러)를 매입
- 인도 에너지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

- 인도 Cairn Energy의 새로운 자회사인 Cairn India의 지분을 10% 매입하여 향후 성장하는 인도 시장 진출의 전략적 발판을 마련함.

(Energy Economist, 2007.2)



미국 주요 주정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추진 합의

- 서부 5개 주(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오리건, 워싱턴주)는 지난 2월 26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추진 합의
 - 이들 주는 6개월 이내에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08년 8월까지 배출권 거래시장의 설립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한편 매사추세츠주 등 동부 8개 주도 '09년부터 배출저감 목표를 실행에 옮길 예정임.
- 미국 주정부의 이 같은 동향은 향후 연방정부 및 다른 주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07.2.28)



일본,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발표

- 일본 내각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해외 에너지자원 부국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승인할 예정
- 일본(원자력연료(주))은 혼합산화물핵연료(Mixed Oxide Fuel, MOX)를 '06년 11월에 처음으로 생산하였으며, 정부는 이의 사용 확대를 추진
 - ※MOX를 활용할 경우 일본은 현재의 우라늄 수입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10% 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음.
- 자원부국과의 외교 사례를 보면 전 세계 우라늄의 17%를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라늄 공동개발을 협약하였으며, 인도네시아로부터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Bloomberg.com, 2007.2.20)



국내외 정책연구

1. 영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 평가

● 개요

-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환경연구소(Environment Institute)는 영국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을 평가하고, 그 정책목표의 달성가능성을 진단하였음.

●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 평가

-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 주요내용
 -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는 '90년 배출량 대비' 12년까지 12.5% 감축임.
 - '20년까지 기존 정책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감축하고, 추가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영국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지구온난화법(Climate Change Bill) 제정, 저배출형 경제로의 전환, 석유의존도 50% 달성 등의 정책방안 추진 예정
- 12.5% 감축목표 달성
 -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 '05년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년 수준 대비 14.7%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산업생산과정, 폐기물관리 및 석탄의 가스전환과정을 통해 달성되었음.
- '20년까지 20% 혹은 30% 감축목표 실현가능성
 - 동 연구소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참여 방식의 현행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으로 '20년까지 12~17% 정도의 감축목표는 달성 가능하지만 20% 감축목표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함.

- 그리고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30%의 감축목표 달성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모두 의무화되고, 새로운 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평가함.

※예를 들면, 정부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 400만톤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평가결과 정책집행의 강제성 미비로 700만~1,300만톤으로 급증 예상. 또한 2016년 이후 무배출형 신규건설 주택 보급시책도 정부의 집행력 미비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시사점

- 우리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배출 감축잠재량 의 달성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channel4.com, 2007.3.6)

2. 아시아 국영석유회사의 해외투자 동향

● 개요

- 영국의 왕립연구소(Chatham House)가 발간한 "Trends in Asian NOC Investment Abroad"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의 석유소비 급증으로 이들 국가의 국영석유회사들은 해외 석유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세부내용

- 아시아(중국, 인도, 일본, 한국과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해외석유 확보를 위한 투자 동향
 - '95년~'06년,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액은 27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됨(미국 기업들은 '04년에만 291억 달러 투자).
- 아시아 국영석유회사의 투자 특성

- 아시아 국가의 해외투자는 자국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으며 추진
- 중국은 개발용자와 기반시설 투자능력이 있어 아프리카 국가의 석유 및 가스개발에 대한 투자 파트너로 선호됨.
- 인도기업은 자국의 원전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타국의 국영석유기업과 상호협력협정을 추구함.
- Petronas는 인도와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기업들에게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분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반면 중국과 인도 기업들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산유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중형크기의 석유회사를 매수하려는 의지를 보임.
-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해외석유 확보를 위해 에너지, 외교 및 경제협력의 통합적인 운영을 추진
- 정치적 관계로 아시아 국영석유회사의 해외석유 투자에 대한 좌절과 기회가 존재
 - 중국국영석유회사의 미국과 러시아 석유기업 인수 실패 및 이란의 Azadegan 프로젝트 추진 좌절
 - 수단과 버마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북미와 유럽기업의 진출이 제한됨으로써 아시아 국영 석유회사에게 진출 기회로 작용
- 향후 5년 내에 모든 아시아 국영석유회사의 해외생산은 세계 생산량의 3%인 2~2.5백만 b/d로 아시아 국가의 전체 수입량의 8~15%를 차지할 전망이다.

(Chatham House, 2007.3.13)



연구원 동정

1. 제6기 에너지 고위경영자과정 개강식 안내

- 일 시 : 2007년 4월 5일(목), 16:30 ~ 17:30
- 장 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
- 세부일정 : 입학생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개강 특강, 개강식 및 축하 행사

2. 국제회의 참석

- 국제에너지기구 글로벌협력 상설그룹회의 참석(프랑스 파리, 3/13~17)
-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 참석(중국 북경, 3/14~16)
- OECD 부속서 제1국가 기후변화 전문가회의 세미나 참석
(프랑스 파리, 3/18~23)
- 한-인니 민관합동 경협 TF 일정 및 의제 협의(인니 자카르타, 3/19~24)
- 제1차 Korea-LA Business Summit Round Table 에너지분과 토론회 주제 발표, 아태 기후변화파트너십 재생에너지/분산전원분과 3차회의 주제발표
(미국 LA, 3/22~31)
- 제33차 APEC EWG33 및 부속회의 참석(뉴질랜드 오클랜드, 3/24~30)

3. 언론 활동

- “나무 에너지를 활용하자” 기고(3/15, 서울경제신문)

회원제도안내

구분	제공자료(발행주기)	특기사항
국내 일반 회원 (연회비: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ergy Insights (격주간) • 에너지통계월보 (월간) • 에너지 포커스 (분기) • 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Energy Info. Korea (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 발송 배포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 학술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초청 •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
해외 회원 (연회비:2천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Northeast Asia Energy Focus (분기) • Korea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연간) • Energy Info. Korea (연간) • 기타 영문보고서 (부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우편 발송 배포
국내 포럼 회원 (연회비: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ergy Insights (격주간) • 에너지통계월보 (월간) • 에너지 포커스 (분기) • 에너지수요전망보고서 (분기) • 에너지경제연구 (분기) • 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정책연구보고서 (연간)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고서 (5년) • 세미나 자료 (부정기)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Northeast Asia Energy Focus (분기) • Energy Info. Korea (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 발송 배포 • 에너지경제연구원 인터넷포럼 회원 전용 자료실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 정보 제공 (회원전용 ID 및 Password 부여)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 학술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초청 •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

●가입 문의 : 교육홍보팀 (031-420-2281)회원 제도 안내

